

광주·전남 코로나 재유행하나...확진자 급증

12~18일 1만6천여명...하루 평균 확진자 3주 만에 2배 증가 전국 확진자 증가...광주 병상가동률 60%대 "지속 모니터링"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18일 광주에서는 7412명, 전남에서는 9074명이 신규 확진됐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광주 1.17, 전남 1.25로 1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가 1을 초과하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광주의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6월 21~27일 529명, 6월 28일~7월 4일 611명, 7월 5~11일 812명이며, 최근 1주 동안은 1059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488명, 673명, 876명, 1296명 등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1일 확진자 수는 3주 만에 광주 100%, 전남 166%가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밀집 접촉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격리 의무 해제 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한때 넉넉했던 광주지역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의 평균 가동률도 절반을 넘어섰다. 현재 중증병상 6개 중 2개(33.3%)를, 준·중증병상은 16개 중 12개(75.0%)를 사용 중으로 총 병상가동률은 63.6%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상 가동률이나 치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 위중증 환자 발생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보다 20%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2주(9~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6953명으로 1주 전보다 22.2% 증가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 6708명으로 직전 주보다 5000명 가까이 늘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 6025명 → 6월 4주 1만 7442명 → 7월 1주 2만 1857명 → 7월 2주 2만 6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 서구 9월부터 운천초 등 4곳

광주시 서구에 있는 광주광천·금당·금호·운천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오는 9월부터 교내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는 19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학교 주차장 공유 선포식'을 열고 광주광천초 등 4개 학교와 '학교 공유주차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천초 21면, 금당초 21면, 금호초 34면, 운천초 35면 등 총 111면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이들 주차장은 사전 모집을 통해 차량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



시민단체, 중학교서 일제 강제동원 수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각화중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여자 근로정신대 관련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들은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접 시민모임 측에 수업을 요청했다. 수업은 3학년 4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광주시-보육 대체교사 화해 불발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교사들, 중앙노동위 조정안 반대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노조 간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권고조정이 끝내 결렬됐지만 노조측이 광주시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 대체교사노조는 임장문을 통해 "인권 도시다운 모습으로 최종 남은 27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광주시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정오까지로 정한 중노위가 조정 시한까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화해는 성립되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 측인 사회서비스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사회서비스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1인인 해고자 복직 우선 검토를 하지 않고 2인(경력직 3년이상 대체교사 채용 검토)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무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합격 여부도 불투명한 3년 이상 대체교사 근무자 신규채용 절차를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오는 27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인권도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광주시에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화재는 줄고 구조활동은 늘었다

상반기 하루 평균 화재 2.2건...구조 출동 4648건 전년비 25% ↑

올해 상반기 광주 소방활동을 분석했더니 화재는 줄어들고, 구조활동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광주 화재 발생 건수는 381건으로 하루 평균 2.2건이다. 지난해 상반기(410건)보다 7.1% 줄었다. 인명피해도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지만, 재산 피해는 같은 기간 16억 3500만원에서 33억 6100만원으로 늘었다. 구조 출동은 총 4648건, 하루 평균 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19건)보다 929건(2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화재 1076건(30.4%), 승강기 사고 477건(25.9%), 위치 추적 471건(35.7%) 등의 순이었다. 생활안전 출동도 지난해 3853건에서 올해 4893건으로, 1040건

(26.9%)이나 늘었다. 소방시설 오작동 처리 1660건(38.2%), 동물 포획 1070건(24.7%), 범접 제거 497건(11.5%) 등이었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명확한 통계관리와 분석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장성·장흥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나서

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광주와 장성·장흥에서 희생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제59차 회의를 열고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2년 2월 사이 광주시 및 당시 광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인 24명이 좌익활동이나 부역 혐의, 또는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과 국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광산군 분방면에서는 경찰이 명도리 대명골(명곡마을)에 모여 있던 인근 마을 청년들과 마을 주민 10여명을 총살했다. 이 사건 희생자들은 10~20대의 교사, 학생 등 청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에는 17세 여학생도 있었다. 광주시에서는 기자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인 2명에 의해 화순군 이십곡리 큰정굴로 끌려가 권총으로 살해당한 후 암매장된 사건도 있었다.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9~11월, 1951년 5월 장성군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주민 131명이 경찰 가족, 우익인사 및 그 가족, 이장 및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차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장성지역은 1950년 10월 초 장성읍이 국군에 의해 수복됐지만, 산악지대인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등 동부지역 일부는 치안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민들이 다수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장흥군 대덕면에 거주하던 주민 등 34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 34명은 모두 민간인 남성이었으며,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장흥경찰서 및 대덕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 있는 의용경찰, 학도대 등으로 밝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성향료